

A Study on the Spiritual Meanings and Thanatological Significance of Near-Death-Experiences(NDE)

Hyunsuk Lee¹, Jinho Ko^{2*}

^{1,2}Donggu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hanatological significance through analysis of the spiritual qualities and its meanings of Near Death Experience(NDE).

[CONTENTS] In this article, first, the recent Near Death Experience(NDE)'s discourse wa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lassical-death experience's discourse. The contents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cent NDE research attempted at the empirical dimension since the 1970s were explored. Second, the spiritual qualities on the NDE's discourse were presented and the arguments related to the NDE research were described. The debate on NDE included discussions on whether or not NDE is a real phenomenon.

[RESULTS] In this article, it has been revealed that Near Death Experience(NDE) is meaningful a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death in modern society where the routinization of death progresses. In this regard, it is also true that until recently, the NDE has been treated only as a kind of mysterious or portrait experience that cannot be scientifically explained. However, in this article, recent scholars have revealed that NDE can be scientifically explain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Near Death Experienced people have revealed that they can realize that they are spiritual beings and there is a spiritual world through Near Death Experiences. And in this respect, the final conclusion was that the Near Death Experience(NDE) could be an trigger experience that fundamentally brings about life changes to the experienced people, suggesting the thanatological significance of the NDE.

[KEY WORDS] Near Death Experience(NDE)'s Discourse, Out of Experience(OBE), Tunnel Experience, non local consciousness, Thanatology, After Life

* Corresponding to Jinho Ko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 kojinho@dgu.edu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근사체험의 영적 특성과 죽음학적 의의 탐색

이현석¹, 고진호²

¹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²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요 약

[연구 목적] 이 논문은 근사체험의 영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사체험의 죽음학적 의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이 논문에서는 첫째 최근의 근사체험 담론을 고전적 죽음체험 담론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실증적 차원에서 시도된 최근의 근사체험 연구의 관점에서 시행된 내용을 탐색하였다. 둘째 근사체험 담론에 대한 영적 논의를 제시하고, 근사 체험연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기술하였다. 근사체험에 관한 논쟁은 근사체험이 실재하는 현상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결론] 이 논문에서는 근사체험이 죽음의 일상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죽음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까지도 학계에서는 근사체험은 과학적으로는 해명이 불가능한 일종의 신비체험이나 초상체험으로만 취급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근사체험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근사체험자들은 근사체험을 통해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자각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 점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체험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근사체험의 죽음학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근사체험, 근사체험 담론, 체외이탈체험, 터널체험, 사후세계, 국한되지 않는 의식

I. 서 론

최근 근사체험에 대한 논의들이 관련 연구물(Moody Jr., 1975; Becker, 2007; Kübler-Ross, 2012, Choi, 2006; Nam, 2014)과 국내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블로그(BTN; Han Kook Seinor TV, <http://cafe.naver.com/neardeath>"/www.nderf.org)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근사체험은 죽음의 과정에서 회생한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근사상태가 엄밀히 말해 죽음과 동일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연구자들은 이 점에도 불구하고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 NDE)’을 ‘일시적 죽음 체험’, ‘사실상의 죽음 체험’으로 명명하고 있다(Moody Jr., 1975). 근사체험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대형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해 죽음의 일상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일종의 ‘죽음 불안(death anxiety)’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근사체험은 죽음의 실체나 죽음의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죽음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내재하고 있다.

근사체험이 연구주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과 같은 의학적 처치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가 소생한 사람들[근사체험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체험한 내용을 진술한 내용에 입각해서 근사체험 연구가 시작되었다. 근사체험의 의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영적 존재로 존재하며, 이 점에서 죽음은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계기적 사건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죽음이 단순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다른 차원[영적 차원] 혹은 다른 세계[사후세계]로 이동시키는 현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근사체험은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현생과 죽음 이후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근사체험이 ‘사후세계(After Life)’의 존재 증명뿐만 아니라, 현생에서의 일들이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의미한다(Long and Perry, 2011: 18-19).

이 논문에서는 근사체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체험(core experience)’(Ring, 1980: 32-33; Choi, 2015: 224)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핵심체험은 근사체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으로는 ‘체외이탈체험(out of body experience, OBE)’[의식이 바깥으로 나아가 자신의 육체를 관찰하는 체험], ‘터널체험(tunnel experience)’[터널과 같은 암흑 속의 공간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체험], ‘빛 체험(light experience)’[빛의 존재 체험]이 있다. 근사체험은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나 관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근사체험 연구는 인간의 영적 성숙과 영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죽음 현상에 대한 이해에도 새로운 이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학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근사체험에 내재된 다양한 논의를 영적 특성과 의미의 관점에서

종합함으로써, 근사체험의 종교적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제 II장에서는 근사 체험 연구의 기원과 1970년대 이후 실행된 실증적 근사체험 연구현황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 III장에서는 근사체험에 대한 내용해석과 진실성의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논의는 ‘체외이탈체험’을 비롯하여 앞에서 언급된 5가지 핵심체험을 대상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에 후속하여 제 IV장에서는 근사체험의 영적 특성과 의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근사체험자들은 근사체험 이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고, 삶에 대한 태도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만일 이러한 체험자들의 보고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사 체험은 종교적 ‘회심(conversion)’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근사체험은 인간의 영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도 그 활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II. 근사체험의 기원과 관련 연구

1. 기원

이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 NDE)’은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이다. 물론 이 점에도 불구하고 근사체험을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인 것이 사실이다. 근사체험은 엄밀히 말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가 도중에 회생한 사람의 체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근사체험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체험의 내용은 실제로 죽은 사람[사자]이나 죽었다가 다시 다음 생에 재탄생한 환생자(delog)들이 제시하고 있는 죽음 체험과도 일정부분 차이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근사체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죽음체험을 기술하고 있는 동·서양의 고전적 저술들이 근사체험의 기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고전적 연구들이 근사체험 연구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근사체험에 관련한 고전적 저술인 『The Tibetan Book of Dead(티벳 사자의 서)(이하 TBD로 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저술의 목적은 삶과 죽음의 중간단계인 ‘중음(Bardo)’ 단계¹⁾에서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해탈에 이르는 교법을 전수하

1) 중음(Bardo)의 첫 번째 단계는 치카이바르도(Hchikchahi Bardo)로서, 이는 죽음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임종중음). 이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존재의 빛으로부터 다가오는 순수한 빛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게 되는 초에니 바르도(Chosnyid Bardo)(실상중음)의 단계이

려는데 있다(Evans-Wents, 1995).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BD』는 환생자(Dellog)의 죽음체험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저술이라는 점에서 이 저술의 내용과 현대적인 근사체험 담론의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 이와 아울러 『TBD』는 해독이 어려운 상징적 기호로 기술되어 있다²⁾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오늘날의 근사체험 진술 내용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초프라(Chopra)(2006: 42-44)는 근사체험을 『TBD』와 같은 고전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근사체험을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이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각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근사체험도 중음과 같은 일종의 죽음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체험의 한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³⁾ Chopra는 ‘중음’을 ‘삶과 죽음의 중간지대’ 혹은 ‘중간 삶(inter-Life)’의 부분으로 명명하고 있다. 중음단계에서 죽은 사람[사자]들의 경험은 그 사람의 본성과 개성 종교적 배경을 반영하게 되는데, 죽은 사람[사자]들의 모든 체험은 그가 인간으로 현생에서 지니고 있었던 일종의 정신작용의 반사물이라고 주장한다(Chopra, 2006: 45). 초프라(Chopra, 2006)는 중음의 과정을 죽은 사람[사자]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의식의 혼돈이나 착각 상태에서 다시 죽었다는 의식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체험 내용은 체험자가 죽음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근사체험의 단계(Ring, 1980: 32-33 in Choi, 2005: 91)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전적 죽음체험 담론의 다른 예로는 스웨덴 출신 천재 과학자인 스웨덴버그(Swedenborg)가 기술한 『The Great Present(위대한 선물)』가 있다. 그는 이 저술에서 죽음 이후 육신으로부터 영체가 분리되고, 영인이 되어 영계를 방문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천국에 이르는 중간에 중간영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 중간영계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시드바 바르도(Sridpahi Bardo)(투생중음)로 구분된다. Evans-Wents(1995: 85)

- 2) 『TBD』에서 ‘49일(7×7=49)’과 숫자 ‘7’은 특별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신비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앞의 불교 문헌에서 제시된 ‘7’이라는 숫자는 사후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곱 개의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지학을 연구하는 P. Blavask는 『The Secret Doctrine(비밀 교리)』에서 티베트 불교에 제시된 49일과 7이라는 숫자가 화학적인 원소기호로도 환원될 수 있는 신비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vans-Wents(1995: 58-59).
- 3) Chopra가 제시하는 죽음체험의 단계는 “① 물리적인 육체는 일단 그 기능을 멈춘다. ② 물리적인 세계가 사라지며, ③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④ 사자는 자신이 죽었음에도 정신과 감각은 활동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⑤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느껴지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⑥ 개성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가지만 나라는 자아개념은 남아 있으며, ⑦ 여전히 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영혼이 다른 존재로 나아가는데 이 나라는 개념이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이다(Chopra, 2006: 43).

아닌 곳으로서 기술하고 있다. 중간영계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된다(Swedenborg, 2022: 133-163). 먼저 1단계는 외부상태가 벗겨지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육체가 벗겨지고 영적인 실체가 되는 단계이다. 제 2단계에서는 영혼의 내부 상태가 드러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영들은 착한 영과 악한 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3단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인들이 교육을 받는 단계이다.

Swedenborg는 영계를 빛과 열로 이루어진 세계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영계에는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념을 매개로 교신이 이루어지는 영계 통신이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영계에도 태양이 존재하고, 이 점에서 영계의 태양이 먼저 있고, 영계의 태양이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영계의 태양이 미치는 힘인 영류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이 이 영류를 통해 영계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가 기술하고 있는 중간영계와 티베트 불교에서의 중음(Bardo) 모두 사후 영혼이 머무는 중간 기착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TBD』에서 기술된 중음이 환생(rebirth)이나 업(karma)과 연관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중간영계와는 내용상 차이점도 내포하고 있다.

Swedenborg(2022)는 『The Great Present(위대한 선물)』를 통해서 죽음의 전 과정을 체험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후세계의 도덕적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그는 영혼의 순결을 위해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근사체험은 죽음체험의 전 과정 중 한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영계체험이 근사체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⁴⁾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대표적인 근사체험 연구자 중 한 사람인 Ring이 근사체험 연구가 단지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경험에 한정해서 기술된 것이라면, Swedenborg의 천국체험 내용은 죽음이라는 집 전체를 탐색한 것과 같다고 평가(Swedenborg, 2022: 133)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현황

죽음체험은 오랫동안 특수한 경험 - 종교적 신비경험(RSME; Religious, Spiritual, Mystical Experience) - 의 분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죽음현상 혹은 죽음체험에 대한 접근은 정상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종의 불가지의 연구 영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죽음 체험 - 근사체험이나 사후체험 포함 - 이 1970년 이전까지도 심령학(psychics) 분야에서 연구되는

4) Swedenborg는 자신의 영계 탐험을 통해 영원히 소멸된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점에서 죽음이 단지 끝이 아니고 눈에서 사라지는 현상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언급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죽음학자 Kübler-Ross의 견해와도 동일하다.

주제로 인식되어왔던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체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1970년대 의료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죽음으로부터 회생한 사람들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전환이 이루어진다.

근사체험자에 실증적 연구는 1970년 이후에 Moody Jr.(1975: 33-94)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는 150명의 근사체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내용을 그의 저서 『Life after Life(다시 산다는 것)』에 제시한 바 있다⁵⁾ 그가 제시한 근사체험의 11가지 특징은 “① 표현의 한계[말로 표현이 어려움], ② 사망 사실의 인지[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됨], ③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 ④ 소음[을 들음], ⑤ 암흑의 터널[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옴], ⑥ 체외이탈[영이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됨], ⑦ 다른 영혼들과의 해후[앞서 죽은 사람들과의 만남], ⑧ 빛의 존재 체험[절대적 존재와 만남], ⑨ 반추[빠른 시간 지난 생을 회고함], ⑩ 경계 또는 한계[수역, 잿빛 안개, 울타리 등의 경계를 경험], ⑪ 돌아옴[육체 혹은 현생으로 돌아옴]”이다. Moody Jr.의 연구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가 수집한 내용이 진료적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엄밀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근사체험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Ring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Ring(1980)은 그의 저서인 『Life at Death(죽음 앞에 선 삶)』에서 근사체험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주요 체험 비중 지수(Components and Weights for the Core Experience index)’는 근사체험자의 체험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지수를 살펴보면 “① 죽었다는 주관적 느낌(1점), ② 평안하고 고통이 없고 기분이 좋다는 느낌(2-4점), ③ 신체가 분리된 느낌(2-4점), ④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2-4점), ⑤ 어떤 존재를 만나거나 목소리를 듣는다(3점), ⑥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3점), ⑦ 빛을 보거나 그 빛에 휩싸인다(3점), ⑧ 아름다운 색을 본다(1점), ⑨ 빛 속으로 들어간다(4점), ⑩ 영혼들을 만나다(3점)”와 같이 분류되어 있다. Ring은 10점 이상을 ‘깊은 체험자’로, 6점 이상을 ‘주요경험의 체험자’로, 5점 이하를 ‘비체험자’로 분류하여 근사체험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 바 있다(Ring, 1980, 52-53 in Choi, 2006, 91.).

근사체험 연구에서는 수준과 함께 빈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Long과 Perry(2011, 7-17)⁶⁾는 근사체험 빈도를 “① 체외이탈 경험(75.4%), ② 감각의 고조(74.4%), ③

5) 근사체험자 150명의 선정 기준은 ① 의사에 의해 임상학적으로 죽었다고 간주되거나 판단 선고 받았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들의 체험, ② 사고, 중병,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사망에 근접했던 사람들의 체험, ③ 사망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로부터 연구자가 보고 받은 내용과 같은 3가지이다 R. M. Moody Jr.(1975:25).

6) 이 책은 동일한 근사체험은 없다는 전제 아래 근사체험에 수반되는 요소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공동 집필자인 Long과 Perry는, 생명의 위협을 겪는 사람 중 12-18%의 사람이 근사체험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사체험을 하는 이유와 누가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위에서 백분율로

격렬하고 긍정적인 감정(76.2%), ④ 터널체험(38.8%), ⑤ 빛과의 만남(64.6%), ⑥ 지인이나 신비로운 존재와의 재회(57.3%), ⑦ 과거, 현재, 미래를 매 순간 체험하는 등 시·공간 개념이 달라짐(60.5%), ⑧ 지나온 삶을 주마등처럼 회고함(22.2%), ⑨ 아름다운 곳이나, 색다른 장소, 평가, 구조물 등 비현실적 영역과의 접촉(40.6%), ⑩ 우주의 질서나 섭리 등 특별한 지식을 접하거나 알게 됨(56%), ⑪ 경계나 장벽을 만남(31%), ⑫ 자의 혹은 타의로 현실로 돌아옴(58.5%)”으로 제시하고 있다.

Ⅲ. 근사체험의 내용해석과 진실성 논쟁

1. 내용 해석

근사체험에는 체험자의 배경 여부-성별, 사회계층, 인종, 결혼 여부, 종교 소지 여부, 근사체험의 예비지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체험이 있다. 그리고 근사체험 중에는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핵심체험(core experience)’이 있다(Ring, 1980 in Choi, 2006, 106-107). 이 장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5가지 핵심체험을 중심으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표 1> 핵심체험(core experience) 5가지
<Table 1> Five Core Experiences that experienced People commonly State during the Near Death Experience(NDE)

핵심체험(core experience)	① 평화(peace) 혹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60%)
	② 체외이탈(body separation)(37%)
	③ 터널체험(entering the darkness) (23%)
	④ 빛을 본다(seeing the light)/(16%)
	⑤ 빛 속으로 들어간다(entering the light)(10%)

출처: Ring, 1980 in Choi(2006, 106-107.)

제시된 내용은 근사체험자 613명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Long과 Perry는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속한 연구재단(www.nderf.org)에서 만든 근사체험 척도(NDE Scale)를 사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나온 수치를 제시하였다 Nam(2014. 125-126).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 ‘평화(peace)체험[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근사체험자들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의 경우에 부상 순간에는 약간의 고통이 느꼈지만, 고통이 예상과는 달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평화의 체험을 일종의 ‘무집착(deattachement)’이나 ‘비인격화(depersionalization)’에서 비롯되는 현상 혹은 죽음의 공포나 괴로움으로부터 자기방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언급된 ‘평화체험’이 나머지 4가지 핵심체험들에 앞서 기술되고 있지만, 이 체험은 통상적으로 ② ‘체외이탈체험(body separation)’과 함께 발생하는 체험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평화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핵심체험의 하나인 체외이탈체험에 대한 논의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근사체험연구자(Long & Perry, 2011, Baker, 2007; Kübler-Ross, 1996; Jeong, 2000; Choi, 2015; Han, 2019)들은 ‘체외이탈체험’을 가장 중요한 핵심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체외이탈체험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①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② 바깥에서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것, ③ 바깥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떠올리면 바로 그리고 이동하는 것, ④ 비물리적인 몸을 수반하는 것, ⑤ 그 체험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의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Yun, 2003 in Choi, 2006: 110 - 11). 아래 인용문은 체외이탈체험에 대한 진술 내용이다

나는 아주 심하게 아팠는데,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변에 갓빛 안개가 질 게 끼더니 내가 몸을 이탈했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부유감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침대 위의 내 모습이 보이더군요 내가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내 몸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영영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Moody Jr., 1975: 46).

체외이탈체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사체험의 실재성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체외이탈체험을 근사체험을 대표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일부 근사체험연구자들은 체외이탈체험을 체험자 자신뿐만 아니라 체험자가 아닌 타자도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주장한 바 있다(Tymm, 2015: 106).

7) 체외이탈체험의 대표적 연구로는 R. A. Monro의 『Journey out of the Body』가 있다. 이 저술에서 체외이탈이 실재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고증과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종교적 회심(conversion)’과 같은 현상도 일종이 체외이탈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체외이탈체험이 근사체험의 하나로 실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National Geographic Korea의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순간의 뇌 활동」에서는 체외이탈체험이 인공적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줌으로써, 체외이탈 현상이 뇌의 착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R. A. Monro(1971) / National Geographic Korea(2002).

내 주의를 끄는 것이 있었는데, 침대 위의 육체적 몸으로부터 60센티미터 정도 위에 무엇인가가 있다. 처음엔 안개 같은 물질이 희미한 윤곽만 구별할 수 있었다. 가만히 붙잡혀 있는 안개로 보였다 …… 그런데 계속 보고 있노라니 이 신기한 투명체가 더 진하게, 더 굳게 응결되어 갔다. 그런 뒤 점차 확실한 윤곽이 생겨나고, 곧 이 안개 같은 물질이 사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Kübler-Ross, 1996: 57-59).

근사체험연구자들은 ‘체외이탈’ 현상을 영체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에너지 패턴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Moody Jr., 1975). Kübler-Ross(1996, 57-59)는 체외이탈체험을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육체(physical body)’라는 허물을 벗어 버리고 ‘영체(psychic body)’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죽음 현상은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어던지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며,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죽음’은 단순히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근사체험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터널체험(tunnel experience)’에 대해 언급할 차례이다. 터널체험은 앞에서 제시된 5가지 체험 중 “② 어둠으로 들어간다”로 표현된 체험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터널체험과 체외이탈체험을 연계체험 - 체외이탈체험 후 터널체험이 발생 - 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두 체험은 삶과 죽음의 구획을 상징하는 일종의 ‘경계체험’으로서의 공통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터널체험의 이미지는 어두운 공간에 빠른 속도로 들어가거나 혹은 ‘빨려간다’라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터널체험은 ‘체외이탈체험’과 동일하게 물질적인 차원에서보다 높은 영혼이나 의식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식이 이미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Choi, 2006: 132). 아래 인용문은 터널체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암흑의 심연 속을 이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둠이 너무나 깊고 칠흑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평온한 경험이었습니다(Moody Jr., 1975: 38-42).

터널체험 체험자들은 물리적 차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해 본 ‘생생한 이미지’를 체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체로 변환된 존재[체험자]가 이 터널을 통과하면, 다른 차원(세계)으로 진입하게 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영체는 터널체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빛의 체험’을 하게 된다. 영체가 마주치게 되는 이 빛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빛보다 훨씬 찬란하고 영롱하게 비추는 ‘밝은 빛’이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영체는 이와 같은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Pribram은 영적 세계는 인간이 존재하는 3차원의 물리적인 세계와는 달리 ‘생생한 이미지’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Pribram, 1971 in Han, 2019: 223). 아래 인용문은 ‘빛 체험’에 대한 진술 내용이다.

처음 그 빛이 나타났을 때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때 그 빛이 물었습니다. 아니 질문하는 것 같았죠.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것은 빛이었는데, 어떤 음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Moody Jr., 1975: 68-73).

다음으로는 ‘빛의 체험’에 대해서 언급할 차례이다. ‘빛의 체험’은 체험 과정에서 단순한 ‘빛’으로 체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체험을 통해서가 아닌 ‘빛의 존재(Figure of Lights)’를 지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체험자에 따라서는 빛의 대상이 절대자(신앙적 대상)와 동일한 느낌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앙적 대상을 동반하는 빛의 존재 체험은 특정한 종교적 배경이 있는 체험자에 한해서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지 빛으로만 체험되는 경우도 있다. 이 장 앞부분에 인용된 Ring이 제시한 빛의 체험은 모든 체험자들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체험자들에 한정되기도 한다. 체험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빛 체험’이 생략되고 ‘삶의 회고 체험’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체험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삶의 회고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감각이 없었으나 마음은 죽지 않았다. 마음의 활동이 지금까지보다 더 활발했다. 다음에 생각은 더 넓어졌다. 전번의 향해, 또 그전번의 향해 난파, 그리고 학교시절, 아이 때의 모험, 이처럼 과거로 소급하여 지금까지 인생이 모두 역행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생각은 단순히 사실만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광경 등이 뚜렷하게 보였다. 즉 내 인생 전부가 파노라마처럼 내 앞에 전개되었다. 그 모든 행위가 선악과 판단을 수반하며 원인과 결과로 분명했다. 실제로 이미 옛날에 잊혔던 사소한 사건이 머릿속을 채우고 또한 그러한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것 같은 신선함을 갖고 있었다(Takata, 2020: 26).

Takata(2020: 26)는 삶의 회고 체험의 특징을 ‘과거에 대한 파노라마식 전개’로 기술한 바 있다. 체험자는 삶의 영상이 파노라마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매우 짧은 순간에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국면이 체험된다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 중 특히 “그 모든 행위가 선악과 판단을 수반하며, 원인과 결과로 분명했다”는 진술은 삶의 체험에 있어서 성찰적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근사체험자들이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도 근사 체험 과정에서 체험하는 이와 같은 성찰의 과정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삶의 회고체험’은 ‘빛 체험’을 대신한다. ‘삶의 회고체험’은 사고사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체험자의 경우에 ‘빛 체험’ 대신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Choi, 2006: 108).

2. 진실성 논쟁

근사체험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진실성 논쟁이 지속된 바 있다. 근사체험에 대해 회의론적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근사체험을 단순한 ‘소망투사(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근사체험이 체험자 자신이 보고자 하는 현상을 무의식적 상태에서 재창출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사체험의 본격적인 진실성 논쟁은 ‘뇌(brain)’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Nam, 2014: 133-145). 근사체험 현상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근사체험이 반드시 뇌에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⁸⁾ 회의론자들은 ‘뇌사’나 ‘뇌기능정지’ 상태에서 - 다시 말해서 뇌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 - 근사체험이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뇌사나 뇌기능정지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 뇌기능작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근사체험이 뇌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사체험에 대해 긍정론자들은 ‘의식’은 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작동 가능하다고 본다. 네델란드의 의사인 Lommel은 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의식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국한되지 않는 의식(non local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로 주장하고 있는데, 근사체험 긍정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⁹⁾ 그는 약물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근사체험과 유사한 체험 - 환각이나 환상 - 발생이 가능하나, 이러한 체험의 경우에는 기억이 조각나 일정치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의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근사체험 유사사례 시에는 근사 체험 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체험자의 삶에 대한 변화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 근사체험의 진실성 문제는 과학과 종교적 입장에서 종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정선이 기술한 “근사체험과 영적인 뇌”에서 제시된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근사체험에 대한 유물론적인 가설[산소 결핍설, 죽은 뇌 이론, 약물설, REM 침입설, 심정지 전후 뇌활성화설, 뇌 손상 시 발생설]과 비유물론적 가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Nelson의 주장과 같이 근사체험

8) 회의론자들은 근사체험에 대해 뇌기능이 멈추기 직전이나 기적으로 의식 회복 후 발생하는 환각, 죽음에 이른 뇌가 산소결핍으로 전두엽에서 일으키는 발작, 죽음이라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장한다. 근사체험 연구에 대한 입장은 Nam(2014) 참고.

9) Lommel과 그의 동료연구자들은 네델란드 10개 병원에서 소생한 근사체험자 344명을 대상으로 심장박동 정지 후 생존자의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Near-death experience in survivors of cardiac arrest: a prospective study in the Netherlands”)를 『Lancet』에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뇌에 의해서도 의식이 작동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를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국한되지 않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Lommel, 2001: 2041).

과 같은 모든 체험들은 뇌기능이 멈추면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이다.¹⁰⁾ 그러나 그는 유물론적 근사체험은 진정한 의미의 근사체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Han, 2019: 96). 그 이유는 유물론적 근사체험에서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비유물론적인 근사체험만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근사체험이며, 뇌기능이 멈추어도 정신, 의식, 자아는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IV. 영적 삶의 변화와 죽음학적 의의

1. 영적 삶의 변화

근사체험연구자들은 근사체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Ring(1980)은 근사체험 후 나타나는 12가지 변화- ① 삶에 대한 인식의 고양(체험자들은 일상의 사소한 모습에서도 기쁨을 느낌/모든 사물로부터 생명력을 인지함), ② 자기수용, ③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된 봉사심을 보임), ④ 생명에 대한 존중(모든 생명체를 귀중하게 여김), ⑤ 반물질주의 반경쟁주의(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줄어 듦), ⑥ 영성의 심화(종교인이 아닌 영적인 인간이 되었음을 실감함), ⑦ 지식에 대한 탐구(우주와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탐구심이 생김), ⑧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생김, ⑨ 죽음의 극복과 사후 생에 대한 확신(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짐/사후의 세계인 내세를 믿게 됨), ⑩ 신에 대한 믿음(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큰 의식의 에너지로서의 신을 이해함), ⑪ 의식의 변화 초능력의 발생(의식의 확장과 텔레파시, 천리안, 독심술과 같은 초능력이 생김), ⑫ 생리적 변화(환경 자극에 대해 민감)-를 제시하였다.

<표 2>는 Lommel이 근사체험이 미치는 영적 삶의 변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결과이다. 아래 제시된 <표 2>의 비교준거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근사체험의 영향 정도를 2년과 8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종단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체험자(23명)와 비체험자(15명)의 상호비교를 통해서 근사체험의 영향 정도를 입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제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근사체험자와 비체험자간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10) 유물론적 가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Alexander의 반론이 있다. 그는 Havard 의과대학 교수로서 7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으면서, 대뇌피질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근사체험을 경험한 후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하여 근사체험의 실재성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유물론적 가설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제시하고 뇌외현상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Alexnader의 비판에 대해서는 Han(2019: 237-239) 참고.

11) NDE=근사체험. 항목당 개별 점수의 합계는 두 번의 면접을 모두 거친 동일한 38명의 환자에게서 나타난 점수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변화 여부와 정도를 나타내는 5점 척도로 응답했다: 강하게 증가

<표 2> 근사체험자와 비체험자의 변화비교¹¹⁾
 <Table 2> Total Sum of individual Life-change Inventory Scores
 of Patients at 2-year and 8-year follow-up

Life-change inventory questionnaire	2-year follow-up		8-year follow-up	
	NDE (n=23)	no NDE (n=15)	NDE (n=23)	no NDE (n=15)
Social attitude				
Showing own feelings	42	16	78	58
Acceptance of others	42	16	78	41
More loving, empathic	52	25	68	50
Understanding others	36	8	73	75
Involvement in family	47	33	78	58
Religious attitude				
Understand purpose of life	52	33	57	66
Sense inner meaning of life	52	25	57	25
Interest in spirituality	15	-8	42	-41
Attitude to death				
Fear of death	-47	-16	-63	-41
Belief in life after death	36	16	42	16
Others				
Interest in meaning of life	52	33	89	66
Understanding oneself	58	8	63	58
Appreciation of ordinary things	78	41	84	50

출처: Pim van Lommel et al.(2001: 2042)

나타났다. 먼저 2년 뒤 결과에서는 모든 삶의 변화 항목에서 체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8년 뒤에도 일부 항목 -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의 목적 이해’의 경우는 비체험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영적 문제에 대한 관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 생에 대한 믿음’ 항목에서는 근사체험자와 비체험자 간 2년 뒤 조사와 8년 뒤 조사에서 모두 큰 차이

(+2), 다소 증가(+1), 변화 없음(0), 다소 감소(-1), 강하게 감소(-2). 이 표의 제시된 34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만 2년 후 면접에서 삶의 변화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영적 문제에 대한 관심’ 항목이다. 이 항목은 체험자와 비체험자 두 집단 간의 연도별 변화 차이-(체험자의 경우는 15에서 42로 증가하는 반면에 비 체험자는 -8에서 -41로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사체험 이후 영적 변화에 대한 다른 연구 예를 들자면 Takata의 연구에서도 체험자들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¹²⁾ Takata의 연구에서는 근사체험자들의 영적 삶의 변화를 동양적 관점-체관이나 부동심 등-에서 제시한 바 있다. Takata는 근사체험 이후 나타나는 체험자들의 삶의 변화 중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근사체험) 생환 후에 인생관이 변했다고 응답한 138명 중 57명(41%)은 그들이 사고나 병 이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적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근사체험이나 사고와 같은 순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akata, 2020: 82-83).

그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죽음을 체관하는 영적 상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Takata, 2020: 82-85). 동양적 사유체계에서 ‘체관’은 죽음을 초월하고 달관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체관’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념의 경지는 죽음이라는 상태에 이르러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부동심)을 갖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죽음과 인생의 의미를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근사체험자들은 근사 체험을 통해 내면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태를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 삶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Takata, 2020: 86).

2. 죽음학적 의의

근사 체험 연구들은 그동안 미지의 영역으로만 생각해 오던 죽음학 연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사체험은 죽음학 연구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근사체험 연구에 내재된 죽음학적 의의는 인간이 ‘죽음’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근사체험이 죽음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과 연계되는 영적인 세계와 ‘사후 생(After life)’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

12) Takata가 제시하고 있는 8가지의 중대한 삶의 태도 변화는 ① 죽음의 공포가 약해졌다. ②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 ③ 운명적인 것을 느꼈다. ④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았다고 느꼈다. ⑤ 사후의 생명을 믿게 되었다. ⑥ 인생의 귀중함을 알았다. ⑦ 인생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게 임하게 되었다. ⑧ 운명적인 것을 보다 담담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삶이란 결코 멈출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과 인간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통해 물질세계를 떠나게 되고, 죽음을 계기로 영적이고 영원한 삶 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Williams, 2022: 26).

근사체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사후 생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게 하는 촉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생에 저질러진 과오나 선행은 사후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Kant가 인간의 도덕 윤리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사후 생에 대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사체험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근사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근사체험의 죽음학적 의의는 사후 생(After life)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현생의 모든 일들이 사후 생에 미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근사체험 연구자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현생과 사후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근사체험은 보편적인 체험은 존재하나 개인에 따라 체험의 내용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근사체험자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배경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과론적 입장에서 보면, 근사체험자들의 사후체험이 제각기 다른 가장 큰 원인은 체험자 각자가 자신이 현생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 모든 행위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Cacey는 카르마(karma)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라이프 리딩(Life Reading)¹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카르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인과율, 뉴턴의 운동 제 3법칙 -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 으로 현생과 사후생을 넘나들며 작용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사체험 연구자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죽음학적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을 해석하면, 죽음은 현생과 내세 간에 존재하며 끝없이 순환반복 - 윤회(circulation) - 한다. 그리고 윤회의 바퀴가 돌아가는 힘이 카르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생의 행위 결과들이 사후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Hall의 주장에 의하

13) 근사체험 경험이 없는 비체험자의 경우 사후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① 사후세계를 수십 차례 다녀왔다고 하는 신비가들의 말을 통해서 사후세계 윤곽을 파악하는 방법, ② 영적인 세계와 소통 능력이 있는 영매를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방법, ③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 전하는 내용을 검증하는 방법, ④ 최면 퇴행(hypnotic regression)을 통해 무의식의 영역에 가라앉아 있던 전생의 기억을 끌어 올리는 방법(Jeong, 2018: 130).

14) E. Cacey의 라이프 리딩(Life Reading)은 최면을 통해 카르마가 미치는 힘을 읽어 내는 영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는 이 라이프 리딩의 능력을 육체적인 병을 진단해내는 육체적 리딩(Physical Reading)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면, 카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사후세계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생을 영적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여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Hall, 2019: 203-213). 근사체험은 인간의 죽음 이후를 미리 준비토록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준비의 출발은 카르마적 원리에서 보면 현재의 삶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부정적인 카르마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자기 규율이다. 이는 자기를 욕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의 행동과 내면을 규제하는 삶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리는 공덕이다. 이는 선한 행동의 실천을 통해 덕을 쌓아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카르마의 과보를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원리는 성장과 배움이다. 성장과 배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현생에서 선한 카르마를 쌓아 나가고 사후세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Hall, 2019: 40-64).

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이 점에서 근사체험과 연관된 죽음 담론이 과거 『The Tibetan Book of Dead (티벳 사자의 서)』나 Swedenborg의 『The Great Present(위대한 선물)』와 같은 죽음학 서적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오늘날에는 근사체험 연구서 이외에도 다양한 Internet 매체와 SNS를 통해서 근사체험 담론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현대사회에 내재하는 죽음 불안과 호기심을 반영한 결과로 결론을 지었다. 근사체험 중에서도 빈도 면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핵심체험이 존재하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체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이어 근사체험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회의론자와 긍정론자들의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근사체험의 영적 삶의 변화를 유발하고 죽음학적 의의를 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의 핵심 결론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근사체험은 인간의 죽음불안(death anxiety)을 해소하는 일정부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근사체험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핵심체험(core experience) - 체외이탈체험, 터널체험, 빛의 체험, 삶의 회고체험 등등 - 과 단계별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근사체험이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론적 입장과 긍정론적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의 네 번째 결론은 근사체험의 영적 삶의 변화와 죽음학적 의의에 대한 내용이다. 근사체험은 명백히 영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

로는 근사체험자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새롭게 설정되며, 인생관이 전환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사체험자들은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사후생을 믿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근사체험은 죽음학적 측면에서 사후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죽음학적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사체험을 통한 사후세계 증명을 확장할 경우 과거의 삶이 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사체험이 과거나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현생의 삶을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사체험 연구를 통해서 획득된 사실은 죽음이 더 이상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Memento Mori)”는 경구를 실질적으로 자각하는 계기를 근사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References

- Alexander, E. (2012). *Proof of Heaven: A Neurosurgeon's Journey into the After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Baker, C. *SHI NO TAKEN-RINSH GENSHO NO TANKYU*, 이원호 옮김 (2007). 죽음의 체험. 서울: 생각하는 백성.
- Beauregard, M., & O'Leary, D. (2007). *The spiritual brain: A neuroscientist's case for the existence of the soul*. HarperOne/HarperCollins.
- Blacher, R. A. (1979). “To Sleep, Perchance to Drea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42(21), 2291-2291.
- Choi, J. S. (2005). On 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Near-Death Experienc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19, 213-250.
- Chopra, D. *Life after Death*. 정경란 옮김 (2021). 죽음이후의 삶. 서울: 행복우물.
- Doka, K. J. & Morgan J. D. *Death and Spirituality*. 김재영 옮김 (2006). 죽음 학의 이해: 죽음과 영성.
- Evans-Wents. (ed.), *The Tibetan of the Dead*. 류시화 옮김 (1995). 티벳 死者의 書. 서울: 정신세계사.
- Hall, M. P. *Past Lives and Present Problem/ Do We bring our Trouble with Us when We come into the world/ Do We choose our Lives Before We are Born*. 윤민, 남기종 옮김

- (2019).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이후의 삶. 용인: 마름돌
- Han J. S. (2019). "Near-Death-Experience and Spiritual Brain". *Theology and the World*, No. 96, 2019.9.30., 213-244.
- Kübler-Ross, E. *On Life after Death*. 최준식 옮김 (2012). 사후 생. 서울: 대화문화 아카데미.
- Lee Seung-Chae (2015).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Near-Death-Experience. *Journal of Humanities*. No. 38. (2015.6.), 73-94. Jeon Buk National University.
- Lommel Pim van et. al. (2001). "Near-death-experience in survivors of cardiac arrest: a prospective study in Netherlands", *Lancet*(358) 2039-2045.
- Long, J., & Perry, P. (2011). *Evidence of the AFTERLIFE*. New York: Harper One.
- McHarg, J. F. (1978). Review of At the hour of death, by K. Osis and E. Haraldsson. *Journal of the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 49, 885-887.
- Moody Jr. R. *Life after Life*. 주진국 옮김 (2007). 다시 산다는 것. 서울: 행간.
- Nam, J. Y. (2014). "A Study on Near Death Experience". *Personalism Bioethics*. No. 4-1. 109-156.
- National Geographic Korea.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순간의 뇌활동/사후세계 참관을 위한 입문.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Geographic Korea (2012). Brain activity at the moment of experiencing a Near-Death-Experience/ Introduction to Visiting the Afterlife.
- Nelson, K. (2012). *The Spiritual Doorway in the Brain: A Neurologist's Search for the God Experience*, New York: A Plume Books.
- Pribrum, K. R. (1971). *Language of the Brain*, Englewood Cliffs.
- Ring, K. (1980). *Life at Death: A Scientific Investigation of the Near-Death-Experience*. Coward: McCann and Geoghegan.
- Sabom, M. (1988). *Light and Death*.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 Sagan, C. E. (1979). *Broca's Brain: Relations on the Romance of Science*, Ballantine Books.
- Swedenborg, E. *Great Present*, 스베덴보리 연구회 편역 (2022). 스베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 파주: 다산초당.
- Takata, Akikaz. 臨死体験の不思議. 편집부 옮김 (2020).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음이후 다시 살아난 삶. 서울: 전파과학사.
- Tymm, M. *The Afterlife Revealed*. 김자성 옮김 (2005). 사후세계의 비밀. 서울: 북성제.
- Weiss, B. L. *Many Lives, Many Masters: The True Story of a Prominent Psychiatrist, His Young Patient and the Past-Life Therapy That Changed Both Their Lives*. 김철호 옮김 (2019).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서울: 김영사.
- Williams, L. *The Survival of the Soul*. 자야리라 옮김 (2012). 죽음이후의 또 다른 삶. 서울: 정

신세계사.

근사체험 연구재단: www.nderf.org

http://whitecrowbooks.com/michaeltymn/entry/death_or_transcendence_as_viewed_by_dr._michael_grosso/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neardeath